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 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무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개역, 창세기 32:21~33:4]**

제가 담임했던 아이 중에 참으로 뛰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에서 수석을 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를 했죠. 시험 치고 오면 선생님들은 “너, 다 맞추었냐?” “몇 개 틀렸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시험 치고 온 애를 보고 “다 맞추었냐?”니까 다 맞추었대요. 그럼 수석이죠. 다 맞추면 만점이 10명이 나와도 다 수석입니다. 그 날 ‘경사가 났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석이 아니에요. 다 맞추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싶어서 뒤로 알아보니까 한 개 틀렸대요. 그래서 4등을 했습니다.

중학교에서 학교 명예를 높이는데 가장 큰 일이 아마 고입에서 수석하는 것일 겁니다. 은근히 기대했다가 많은 분이 섭섭하게 여겼죠. 그 아이를 불러 놓고 말했습니다. “네가 수석을 하면 너도 영광스럽고 학교도 이름을 날리고 담임인 나도 기분 좋은 일이겠지마는 수석이라는 것이 너한테는 좋은 게 아니다. 차라리 하나쯤 틀린 게 잘한 일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들어갈 때 수석이라 하면 3년동안 그것이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수석이나 100등이나 경우에 따라서 실력 차가 얼마 안됩니다. 그 해에 우리 반에서 2등 하던 아이가 들어갈 때 칠십 몇등으로 들어갔는데 2학년 때 이 두 녀석이 하나는 문과 수석하고 하나는 이과 수석을 했습니다. 일등이나 칠십 몇등이 실력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수석으로 들어가도 조금만 잘못하면 오십등 육십등 밀리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밀리면 ‘너는 수석으로 들어온 게 어찌 그러냐?’ 합니다. 칠십등으로 들어간 애는 이십등, 삼십등 하면 ‘야, 잘한다.’ 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수석은 무거운 굴레를 지고 다니는 셈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수석은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너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 틀린 것 잘했다. 들어가서 잘하면 된다’ 그렇게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학할 때 수석! 이렇게 이름이 한 번 잘못 붙으면 이름값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름값 못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성경에서 이름값을 제대로 못한 사람을 꼽으라면 일 번이 아브라함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입니다. 몇 개국요?

열 개국.

그게 열 개국 아닙니다. 열 개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열 개국이라고 하십니다. 그 ‘열’자는 열십 자가 아니고 ‘여럿’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후대에 많은 민족이 생겨날 거라는 얘긴데 자식이 몇 명이나 되지요? 백세 넘어서 낳은, 그것도 좀 어리숙해 보이는 어린

에 하나밖에 없는 판에 이름은 아주 거창합니다. 열국의 아비! 이름값 못하는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름값을 잘 할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름값을 잘 하려면 우선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놓으면 이름값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자! 이 이름값 하려면 얼마나 힘들니까? 차라리 미련이라 지어놓으면 이름값 하기 아주 좋습니다(우리 교회에 이 이름을 가진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이름을 잘 지어놓으면 이름값 하기 쉽지만 잘못 지어놓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글썽... 이성자 집사님은 아무리 애를 쓴들 성자 소리 들을 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름값을 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제가 붙인 야곱의 다른 이름이 눈뜬 소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으며 기적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야곱의 눈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형님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것만 보이니 야곱은 눈 뜬 소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이름값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가리켜서 야곱이라 부르시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시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눈치챌 수 있을 만큼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야곱은 그걸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피와 자기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길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형님이 온다고 해서 뇌물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조금씩 갈라서, 조금이라 해도 우리 식으로 몇 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나누어 여러 차례 형님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봅시다.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우리 가운데 밤에 경야 하다가', 22절에, 밤에 압복 나루를 건넵니다. 왜 밤중에 강을 건넜을까요? 이 강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왜 밤중에 강을 건넜을까요? 밤에 이동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야간에 이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군인들입니다. 이동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별통은 밤에만 이동합니다. 낮엔 이동을 못해요.

야곱이 밤중에 강을 건넌 것은 아무래도 군인들이 이동한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형님이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강을 건너지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어둔 상태에서 강을 건너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강을 건네 놓고 자기는 왜 안 건너고 혼자 남습니까? 지금 야곱은 여전히 굉장한 두려움에 잠겨 있습니다.

떼를 나누어서 형님이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포기하려고 마음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야, 도저히 안되겠다. 건너자!' 그래서 밤중에 다 건네 놓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왜 혼자 남았을까요? 아마 가족들을 건네 놓고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무슨 일이라도 해보려는 것이었겠지요. 무슨 일이라고 해봐야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아니면 혼자 앉아서 평평 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꼴을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혼자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좌우간 야곱은 지금 처참한 심정입니다.

IMF 터지자 직장에서 나와서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도시락 싸 들고 산에 가서 하루종일 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합니다. 그런 심정이나 지금 야곱의 아픔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야곱은 너무 처참한 심경이 되어서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이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뭘 했죠? 그 밤에 야곱이 거기서 뭘 합니까?

씨름요.

운동하는 겁니까? 그렇게 가슴 아픈 이 상황에 웬 씨름을 합니까? 아마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씨름입니까? 문장을 잘 보시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씨름을 해요? '야곱이 하다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한 건, 같이 했으니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씨름을 하자고 덤빈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이 지금 괴로움에 못 이겨서 힘들어 하는 이 때에 웬 사람이 온 겁니까. 그 들판에 웬 사람요? 더

군다나 이 밤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찾아온 거예요. 와서 씨름하자고 한다고 야곱이 붙었겠습니까? 이 씨름을 한국식 씨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살마는 어디서 구해서 붙였을까?' 이런 식으로 상상하시면 안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름을 해도 우리처럼 씨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을 우리말로 옮길 때 비슷한 단어를 쓴 것이 씨름일 뿐입니다. 씨름과 비슷한 몸싸움이었겠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러냐? 무슨 일이나? 나한테 이야기 해봐라.'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임마, 시끄럽다. 어디서 온 놈이나? 조용히 있고 싶으니까 좀 비켜 줘!' 이런 식으로 싸움이 붙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보통 질긴 사람입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들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야곱이 밤새 기도했다고 말을 하지만 이 상황을 잘 보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붙은 겁니다. 무슨 씨름을 밤새도록 합니까? 붙어서 싸우는 거지요.

이 씨름을 가만히 보세요. 참 이상해요. 밤새도록 싸우는 것도 이상하죠? 낯선 사람이, 그것도 밤중에 찾아와서 씨름을 거는 것도 이상하죠?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그러면 찾아온 사람이 못 이겼는데, 못 이긴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어 버립니까? 반칙을 한 건가요? 정상적으로 못 이기니까 반칙을 해서 환도뼈를 위골시켜 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야곱은 그래서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절면서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진 사람이 '갈란다 놈아!' 하니까 이긴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못 보낸다고 매달리는 겁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이라고 있던 말입니다. 가만히 상황을 한 번 보세요.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상한 점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와서 옆에서 '야곱아 내가 왔다' 그렇게 자꾸 집적거리는 거예요. 야곱이 붙어서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사람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겠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야곱이 눈치챌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나 씨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야곱이 '야, 하나님이겠다 아니면 천사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뭇 갑니다' 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야곱이 딴 것은 못해도 한 번 물었다 하면 안 놓는 사람이거든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매어 달리는데 이때쯤은 아마 야곱이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겠거니 하고 죽자살자 매달리는 겁니다.

다리를 절어가면서 매달리는 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보여줬는데도 야곱이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다가 도저히 안되는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몇 시간이나 씨름을 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께 기를 쓰고 매어 달립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겨서 복을 받아 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야곱과 씨름하면 못 이깁니까? 아이들과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더니 싱거운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연세가 하도 많으셔서...' 왜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까지 왔으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싱거운 녀석이 그런 소리를 하기는 합디다마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해서 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겨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겨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도 맞긴 하지만 여기서는 더 구체적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연히 찾아오셔서 집적거리고, 실컷 싸우고는 겨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지 않고, 실컷 싸우고 나서 겨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일부러 지고서는 '야,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너 이름 바꿔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

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데 본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이름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피는 그만 부리고, 너 재주껏 살아보겠다는 그 재주 그만 부리고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지 않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으면 그 다음 상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넌 이제 누구와 싸워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환도뼈를 찢을까요? 참 재미있습시다. 환도뼈라는 것이 지금 그런 명칭을 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도를 다른 말로 하면 군도라고 할까요? 군인들이 허리에 차는 칼입니다. 군인들이 칼을 차는 부위라고 해서 환도뼈라고 붙인 것 같은데 허리부터 시작해서 종아리까지를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찢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골반이나 대퇴뼈 근처를 찢 모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면 곱게 지지 하필 거기를 찢느냐 하는 애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야곱의 특기가 뭘니까? 많아요.

속이는 것.

그래요. 야곱의 특기가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이것도 잘 합니다. 그것 말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 한 번 보세요. 몇 번이나 도망갔어요? 형님과 아버지를 속인 죄로 결국은 외삼촌 집까지 도망갔죠. 거기서 오랜 세월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당하게 떠났으면 좋았을텐데 외삼촌 가족들이 없을 때 몰래 도망을 치거든요. 그렇게 도망친 야곱이 지금 자기 형님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또 뭐합니까?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둘로 나누어 이 쪽을 치면 한 쪽이 피해야지... 또 도망칠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땀에는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 그렇게 도망 잘한다 말이지! 너 그렇게 도망 잘 가? 그럼 또 어디 한 번 도망쳐 봐!'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만 부리는 야곱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할까요?

야곱은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그 날 아침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가에서요. 다리를 절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느낌은 밤새도록 철야하고 난 기쁨일까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냈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리를 안 절면서 받았으면 더욱 좋았겠죠.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피를 쓰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에 대한 징벌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피를 아예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한 대 맞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리를 저는 야곱이 사실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무언가를 의지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한 대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이라면 그건 행복입니다. 야곱은 이 날 아침 하나님에게 한 대 맞고 다리를 절면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정말 기뻐야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고 계심을 보고 감사하며 용감하게 나아가야 했는데 야곱이 그렇지 않다는 점이 연약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러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잘 보시면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28절인가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서도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사람으로'란 말이 하나 더 붙었느냐는 애깁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과 겨루어도 이긴다는 의미가 이 속에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아마 에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앞으로 어떤 사람과 겨루어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뜻입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떨쳐 버려도 좋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릅니까? 알면서 묻습니다. 알면서 묻는다는 것은 너 자신을 한 번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을 잡고 나왔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잡다'는 말은 '속이다, 간사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말은 발꿈치가 이런 용도로 잘 안 쓰이는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아, 그 사람 남의 등을 잘 치는 사람이다' 조금 표현이 험해지면 '등쳐먹는 사람이다'가 됩니다. '등친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등친다고 말할 때 이것은 굉장히 나쁜 의미로 사용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꿈치를 잡는다, 발꿈치를 든다처럼 발꿈치가 관계되면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우리 말에 등쳐먹는다는 말과 거의 어감이 같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발꿈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한 군데 나오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창 3:15).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수난을 시편에서는 '발꿈치를 든다'고 표현합니다(시 41:9). 발꿈치를 든다는 것이 사람을 아주 해롭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바로 그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야곱이 이름값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이름값을 아주 훌륭하게 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너 아직도 간사하게 살거냐 그 말입니다. 여전히 네 힘과 네 피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멋진 이름대로 남은 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형 에서를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내가 형 에서를 두려워 하겠느냐? 그런 자세로 남은 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간 후에야 이 말씀에 걸맞은 생을 살게 되더라는 얘깁니다.

33절입니다. 그 말씀 후에 식구를 또 나누죠. 식구를 네 때로 나눈 것 같습니다. 무슨 순서로 나누었습니까? 부인 네 사람이 있었는데 제일 아끼고 좋아했던 부인은 제일 뒤에 그럼 제일 앞에는? 덜 좋아했던 부인부터 앞에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서 제일 사랑했던 부인은 제일 뒤에 놓은 채 나아갑니다. 왜 그러는대요? 여전히 형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귀한 성도가 되었지만 정말 성도답게 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력하는 가운데 점점 자라가야 하겠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어째 저 모양일까? 너무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또 똥판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점잖게 표현되었지만 쉬운 말로 하면 당신의 이름이 뭐니까 하는 얘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 거의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합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일이 되어가는 걸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는 얘깁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말이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지금도 이 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아직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아 그렇게 보고도... 도대체 네 눈에는 보이는 게 그렇게 없냐?'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돌아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피부리는 것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데에는 굉장히 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늦어요? 굉장히 늦어요. 하나님을 알아채는 데는 참 더딘

사람이었습니다.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만도 한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묻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은 드디어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형님이 언제 변했을까요? 형님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이끌고 오다가 언제 변해서 동생을 반가워하고 평평 울었을까요? 야곱이 기도할 때? 뇌물에 녹아서?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왔으니까 분명히 죽이겠다고 왔다?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님을 만났을 때에 일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이미 결정난 사항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대책도 없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까?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예서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서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형님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었는데 혼자 생고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을 두 가지로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야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야곱 편에서 이야기를 해 보고 하나님 편에서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야곱 편에서 먼저 해 볼까요? 이제 형님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식구들 다 보내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밤새 씨름이 붙었는데 아무래도 수상하다 하나님인 것 같다. 그래서 거기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름도 바꿔 주셨다. 그런 이후에 형님 만나는 게 두려웠지만 만나봤더니 별일 없더라 이게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얘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지켜주었건만 또 강가에서 저러고 있던 말입니다. '저 놈의 자식, 저거, 아무리 눈치를 쥐도 도대체 안되네. 결국 확실한 사인을 보여 주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눈치 챌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 너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좀 살아라.

야곱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싸인만 보내시던 그 하나님이 정말 안되겠다 싶으니까 막판에 직접 뛰어든 것입니다. 축구 감독이 소리소리 지르다가 운동장에 직접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제 용기를 내고 겁내지 말고 건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론 우리의 생애가 나의 이야기인 것보다는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은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야곱을 닮아서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스스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바깥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장면으로 기억하십시오.

또 한가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이라고 이름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니까? 우리 자신들의 이름은 뭐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들은 대체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믿는 아이들 모아놓고 애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하고 물어 보았는데 성경적인 이름은 별로 없습디다. 지금은 좀 많아졌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길다란 찬송을 짝막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라. 그리고 그 문장에서 두 글자만 뽑아서 애 이름을 지어 보라고 문제를 냈거든요. 저는 그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로 요약하고 우리 딸 이름을 은영이라고 지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하고 '하은'이란 이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녀석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셨습니다'고 대답을 하더라구요 '야, 그거 괜찮네. 애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으냐?' 했더니 '메주하는 바람에 웃음을 못 참아서 한 20분동안 공부를 중단하기도 했답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이름이 그렇게 성경적인 바탕을 갖고 있지 않더라 말입니다. 제 이름에 관해서도 별 할 말이 없습니다. 큰아버지가 한학을 하시면서 사주팔자에다 음양오행설에 잘 맞춰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물론 그 이름 덕을 좀 보긴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성경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 좀 섭섭하긴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니까?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자기인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옳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성도라서 이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욱 얻어먹을 짓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성도란 생각이 확실하면 우리의 행동이 대단히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도'란 말에 좀 언짢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란 단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흔히 쓰는 성도라는 단어의 용도가 뭐니까? 집사도 아니고 별다른 호칭이 없으면 성도라고 한단 말이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성도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데 장로도, 집사도 아니니까 성도? 이것 좀 이리저 맙시다. 굳이 성도라는 단어를 쓰려면 목사님도 성도, 장로님도 성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야곱을 향해서 너 이름이 뭐냐고 묻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름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바꾸란 말입니다.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네 이름이 성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뭐니까?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다르게 살았으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기주의자? 말만 많은 사람? 깐깐한 사람? 여러분을 아는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표나게 삼시다. 마음은 그런데 뜻대로 잘 안된다고요?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이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는 그렇게 되고 맙니다. 지금 당장의 이름이야 야곱일 수도 있고 무석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미련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에만 잡히면 됩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입니다. 결국은 이름값을 하고 맙니다. 결국은 성도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